

#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행복한 삶 살게 돼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것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슨 길을 가고 있어요?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안내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져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확신을 안 가지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의 길을 가는 방법론을 알려 주었습니다. 사망의 신이 늘 주장하고 있는대로 영생의 확신이 쉽게 오지 아니하고 영생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가치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치관에는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치관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 가져올 수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기왕 세상을 살아서 죽는 길을 갈 때에는 기왕이면 영생의 길을 가는 게 좋으므로 영생의 길을 꼭 가야 할 필요성을 가치관적으로 이 사람이 논하는 것입니다.

### 죽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러므로 사람이 살다가 죽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학박사가 됐다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으면 죽기 위해서 살다가 되고, 죽기 위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되고, 죽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가 된다고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죽는 사람에게 일전의 가치가 있어요? 가치 성립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가치관 때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되면 철학이 잘못되게 되어 있고, 가치관이 잘못되면 세상을 불행하게 살게 되므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시간 시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람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였다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원래 영생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였다는 것을 이 사람이 성경학적으로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피의 작용인고로 사람이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인간의 피의 작용입니다. 그 피가 바로 조상으로부터 온 피가 되므로 인간의 조상은 죽지 않는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피가 되므로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 학자가 이러한 말을 해본 사람이 없었죠? 이 사람이 논하는 학설이 정확한 학설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피의 작용인고로 조상의 피가 우리 후



구세주 조희성님

### 피작용이 마음작용이다

인간의 마음이란 피의 작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A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얌전하고 꼼꼼하죠. 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사교적이죠. O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고집이 세고 성격이 과격하죠. 이것은 바로 피작용이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피의 작용인고로 조상의 피가 우리 후

손들에게 와서 있는고로 조상의 피의 작용에 의해서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논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해봤어요? 어느 학자가 말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어느 종교가 이런 말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는 수준 이하의 인간들만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 우리 조상은 행복한 존재였다

이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차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 말씀 나오는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인간의 조상이 죽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 영원 전부터 영원무궁토록 살아본 경험이 있는고로 인간의 조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낙원이 되는 그 하늘나라에서 살았다 하는 것이 성경에는 그 낙원이 되는 천당을 에덴동산이라고 표현했죠? 인간의 조상 아담과 헤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것이 기록이 뚜렷하게 되어 있죠.

인간의 조상 바로 아담과 헤와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되는 에덴동산에서 살았던고로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괴롭게 살았을까, 즐겁게 살았을까? 그래서 사람마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마다 즐겁고 기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바로 피의 작용인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헤와 하나님이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본 경험이 있는 그런 조상의 피가 우리 후손들 속에 흐르고 있는 까닭에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기쁘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으로 회복되 기만 하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가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대학원에 가도 이런 학설 못 들어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부흥강사 목사가 있

다 하더라도 모르는고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되면 분명히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의 핏속에 마음속에 증거가 있는고로 영생의 길을 모른다면 길을 찾아서라도 가야 되죠.

### 한국에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나왔어, 안 나왔어? 미국에 나왔죠? 한국에 나왔어요. 소사에 여기 있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호박이 넝쿨째 굴렀다고 내가 초창기부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한평생 살 때 이제 그대로 죽을 전제로 해서 사람이 살면, 죽음을 전제로 한 삶은 말할 수 없이 절망과 낙심이 거듭되면서 죽을병에 걸려 고생고생만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결국은 땅속으로 기어들어가요? 땅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비참하죠? 죽는다는 걸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나 이 사람이 영생의 비결, 영원무궁토록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 반드시 영생의 길을 가서 영생을 얻어야 되겠죠.\*

1992년 5월 18일 말씀 중에서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참성경

## 《1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 ④ 하란에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 죽다 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람

#### ④ 하란에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 죽다

하란이 121세의 나이로 죽은 바로 그 해에,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 셋째아들 나홀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향했습니다(창11:31). 둘째아들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 그리고 만아들 하란이 낳은 듯이 191세의 늙으신 아버지 데라를 잘 모시고 종들과 더불어 가족을 물면서 본토 우르(이라크 남단에 위치)에서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따라 두서너 달 동안 행군하여 우르의 북서쪽 약 800킬로미터쯤에 있는 하란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평소 교역을 위해 우르와 하란을 오가며 데라의 전령 역할을 해왔던 종 앞에서 나홀에게 가서 부친의 하란 도착소식을 전했습니다. 나홀은 아내 밀가와 함께 아버지 데라를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나홀이 분가한 지 11년 만에 아버지 데라와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 나홀은 하란의 변두리에서 정착하고 마을을 형성했는데, 하란의 도시 사람들은 나홀이 사는 곳을 나홀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란 변두리에 위치한 나홀의 성'은 훗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온 곳이며 그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나홀의 손자)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라반은 브두엘의 아들이었으며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동생 나홀이 사는 그곳을 나홀의 성'



Haran in the 12th Century(12세기의 도시 '하란') - Painting by Mehmet Inci

이라고 불렀습니다(창24:10).

데라는 이번 먼 여행길에 얻은 여독으로 몹시 쇠약해졌고 하란에서 14년을 더 살다가 20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라에게 하란의 도시는 데라의 만아들 이름과 똑같아서 본토 우르만큼이나 친근감이 느껴졌으며 자신의 재산을 잘 보존하여 늘어가면서 자손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데라는 임종할 때에 유언하기를 "나의 시신을 거두어 여기 하란에 장사지낼 것이며 아들 하란이 죽은 본토 우르에는 돌아가지 말 것이며 나의 후손들이 하란에서 번영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란 도시의 중심지에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살았던 아브람은 종을 보내어 변두리에 살고 있는 동생 나홀에게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유언을 전했습니다.

####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아브람은 하나님의 지시만 기다렸습니다.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까지 오기 전에 본토 우르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제가 가야 할 목적지가 구체적으로 어디니까?'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말긴 자의 심령상태에 있었습니다. 뿔성부터 나무는 뿔성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중심을 보시고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질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란에 있는 아브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람아, 하란을 떠나 남쪽으로 두어 달 내려가면 가나안 땅이 있으니 거기서 안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임종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생 나홀과 작별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과 롯의 누이동생 이스기는 계속해서 아브람 자신과 함께하겠다고 하면서 따라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향하던 그 해에, 아브람은 75세요, 조카 롯은 35세였습니다.

#### 아브람이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 전체를 동생 나홀에게 양보하다

데라가 임종하면서 아브람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상속을 받아야 할 맏아들 하란이 아비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으로 향하는 아브람 일행

보다 먼저 죽었고 차남이 되는 아브람이 장자상속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데라는 침상에 누운 채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나홀은 분가하면서 이미 나의 재산을 충분히 받았고 지금 잘 살고 있기에 걱정이 없다. 그런데 아비 하란을 잃은 것이 걱정된다. 아브람아, 너는 그동안 하란을 대신하여 그의 아들 롯을 잘 보살펴 왔다. 하란에게 상속되어야 할 재산을 보관하였다가 롯이 자립할 정도로 성장하여 분가할 때에 돌려주어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 못지 않게 동생 나홀도 사랑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데 아브람은 한 살 아래 동생 나홀이 하란의 땅에 남아서 아브람 자신을 대신하여 아버지 데라의 기업에 이어나갈 것을 생각하니 무척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생 나홀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될까 하는 궁리 끝에, 아브람은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을 나홀에게 주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훈훈한 형제애를 느끼게 하는 아브람의 결심 배경에는 그 아내 사레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레는 아브람이 동생 나홀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알고, 남편 아브람에게 "우리는 조카 롯에 부여된 재산을 보관하는 데만 있지 말고 그 재산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늘린 재산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와 조카 롯과 우리의 종들이 생활하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오니, 당신에게 상속된 재산을 동생 나홀에게 양보하면 괜찮지 않나요?"라고 동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레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녔고 얼굴도 아름다웠습니다.

####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안엘라